



2월이다. 아직 산과 들에는 겨울 내내 내린 흰눈이 쌓여있고 추위도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봄기운이 갈마들고 있다.

절세의 위인께서 탄생하신 2월. 항일대전의 총성이 울리던 백두밀림에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민족의 대운을 알리는 대경사, 뜻깊은 사변이었다.

이 려사의 2월이 있어 백두에서 개척된 성스러운 민족주자위업은 줄기차게 이어질 수 있었고 나라와 인민의 운명과 지위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갈술엔 서리꽃이 반짝이여도 들창가엔 봄빛이 따스합니다 백두밀영고향집 프락가에서 이 가슴에 안아보는 2월은 봄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숭배와 그리움이 차넘치는 이 나라 강산에 달과 해를 이어 계속 울려 퍼지는 노래 《2월은 봄입니다》.

이 노래를 조용히 불러보 느라면 봄빛이 따스한 백두산밀영고향집프락이 어리여오고 소백수의 유정한 물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크나큰 사명감을 안으시고 한평생 나라와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그의 성스러운 한생은 이 나라 인민들에게 영원히 자주와 평화, 행복의 따스한 봄을 안겨 주시려 찬바람, 눈바람을 다 맞으시며 끝없는 헌신의 길을 걸으신 자애로운 아버지의 위대한 한생이었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선군장정의 길을 걸으시며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켜 주시던 나날에 그의 가슴속에 울리고 또 울린 노래도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였다.

정녕 인민의 봄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오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그이 탄생하신 백두산밀영고향집은 이 나라 인민에게 있어서 영원한 봄의 고향이다.

인민의 영원한 봄의 고향에 다함없는 축원이 물결칩니다 백두의 태양을 길이 받들어 무궁도록 빛내여갈 2월은 봄입니다

지금 공화국의 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념, 강국념원을 가슴마다에 새기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혁명의 새

로운 고조기, 격변기를 열어나가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백두산밀영고향집을 영원히 마음속에 간직하고 힘차게 나아가는 공화국인민들의 앞길에 승리의 밝은 미래가 펼쳐져있다.

본사기자 주일봉

2월의 강산에 넘치는 그리움

언제나 자신을 인민의 아들로 여기시며 한평생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의 목소리, 영생축원의 송가가 2월의 강산에 울려 퍼지고 있다.

오늘도 햇빛같은 미소를 보내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를수록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바치신 그의 불같은 한생이 어려온다.

자신의 한몸을 초발처럼 불태우시며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나라와 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줄기차게 이끄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그의 생애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세의 애국자의 고결한 한생이었다. 항일대전의 나날 설한봉 뿔스는 백두밀림에서 탄생하시어 성장하신 그이께서 드신 음식은 넘기 힘든 짭짤한 강낭죽이었고 씩씩한 산나물이었다.

설명절은 우리 민족이 오래전부터 쇠고있는 민족명절의 하나이다.

해마다 이날이 오면 사람들은 민족의 고유한 풍습대로 명절을 즐겁게 보내고있다.

어디서나 민족옷을 차려입은 사람들, 줄넘기와 연피우기, 팽이치기, 제기차기 등 민족놀이여 연이 없는 아이들의 모습이며 가정들에서 전통음식들을 들며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설명절과 같은 전통적인 명절 휴식에도 민족의 전통문화를 계

어린시절부터 백두의 눈보라를 맞으시며 고생을 많이 하시고 한생토록 순간의 휴식도 없이 애국헌신의 길을 걸어오신 위대한 장군님.

인생이란 인민을 위해 바치는 한생이라고, 조국의 통성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하는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시면서 한생을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 고스란히 바치신 그이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을 인민을 위한 당,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키셨으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도 제시하시고 늘 인민을 위하여 《우리》라는 호칭으로 불리우는 일군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었다.

나는 모든것을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놓고 생각하며 인민들이 좋아하는것을 제일 큰 락으로 여긴다. 인민의 기쁨이자 나의 기쁨이고 인민의 행복이자 나의 행복이다. 이것은 나의 확고한

행복관, 인민관이다. ... 이런 뜻으로 온넛을 불태우시며 쉬임없이 이어가신 헌신의 자욱우에 가슴뜨거운 이야기들이 무수히 새겨져있다.

제기밤이나 한풍기의 즉, 구운감자 몇알로 끼니를 에우시며 인민을 위한 헌신의 길을 이어가신 일화들, 외국방문의 길에서도 두근은 인민들생각에 깊은 밤 달리는 철차에서 눈물지으신 이야기, 어느 양어장에서 물고기들이 자신들로 떼지어 모여드는것을 보시며 이 물고기떼가 자신들로가 아니라 다 인민들에게로 갔으면 정말 얼마나 좋겠는가고 하신 사실...

언제인가 평양의 하늘가에 황홀한 축포가 터져왔던 그밤의 이야기가 오늘도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고있다.

강위대한 총대로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시고 이 땅우에 평화의 푸른 하늘을 열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와 업적에 대해 아

주체78(1989)년 1월 어느날이었다.

일군들과 자리를 함께 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올해 음력설이 언제인가고 알아보시고 옛날부터 우리 사람들은 음력설을 쇠는것을 전통으로 하였다고 하시면서 해방직후까지만 하여도 음력설을 크게 쇠군 하였는데 대

그러시면서 앞으로 음력설을 어떻게 쇠게 하겠는가 하는것을 연구해보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하시었다.

주체86(1997)년 2월 어느날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그전에 우리 인민들은 음력설을 즐겁게 쇠군 하였다고, 온 한해동안 일하다가 음력설이 오면 지방마다 특색있는 여러가지 음식도 만들어 먹고 옷놀이와 같은 즐거운 민속놀이도 하였으며 아이들은 연피우기, 제기차기, 썰매타기와 같은 유희를 많이 하였

히 바라는 일군들에게 그이께서 이렇게 교시하시었다.

아니, 이제 나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소. 훌륭한 우리 인민에게 나는 저 축포의 천만가지 색갈과 같은 행복을 반드시 안겨주자는거요. 우리 인민이 어떤 인민인가. 고생을 많이 한 이 인민을 두고 내가 어떻게 혁명을 놓을 수 있고 편안을 찾을수 있겠는가. ...

인민에 대한 불같은 사랑을 안으시고 불면불휴의 현지도강행군길을 줄기차게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가 있었기에 이 땅우에 기념비적 건국물들이 훌륭히 일떠설수 있었고 엄혹한 시련속에서도 장엄한 승리의 포성들이 연이어 울려 퍼질 수 있었다.

첨단을 돌파하며 세계에로 나아가는 공화국의 힘찬 기상에, 사회주의만세소리 넘쳐나는 이 땅 방방곡곡에도 절세위인의 숭결과 체취, 눈물겨운 헌신의 자욱이 뜨겁게 어려있다.

김소영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력사, 위민헌신의 력사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끝없이 이어지고있다.

세상에 인민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으며 인민이 하늘이고 인민이 있어 나라도 있고 조국도 있다는 철칙의 신조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었다.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을 지니시었기에 그이께서는 인민을 위한 고생을 더없는 락으로 여기신다. 사랑하는 인민의 모습을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안으시었다.

력사상 처음으로 인민의 지위를 수령의 영상과 결부시켜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운 바로 여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신 인민관의 위대성이 있다.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최고의 높이에서 체현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력사는 길이 빛나고있는것이다. 김소영

설명절이 전하는 이야기

승하고 발전시키는데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기울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민족애가 뜨겁게 깃들여있다.

주체78(1989)년 1월 어느날이었다.

일군들과 자리를 함께 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올해 음력설이 언제인가고 알아보시고 옛날부터 우리 사람들은 음력설을 쇠는것을 전통으로 하였다고 하시면서 해방직후까지만 하여도 음력설을 크게 쇠군 하였는데 대

그러시면서 앞으로 음력설을 어떻게 쇠게 하겠는가 하는것을 연구해보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하시었다.

주체86(1997)년 2월 어느날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그전에 우리 인민들은 음력설을 즐겁게 쇠군 하였다고, 온 한해동안 일하다가 음력설이 오면 지방마다 특색있는 여러가지 음식도 만들어 먹고 옷놀이와 같은 즐거운 민속놀이도 하였으며 아이들은 연피우기, 제기차기, 썰매타기와 같은 유희를 많이 하였

다고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그후에도 우리 인민들이 설을 쇠어도 우리 식으로, 우리 민족고유의 전통대로 쇠도록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필요한 조치들을 다 취해주시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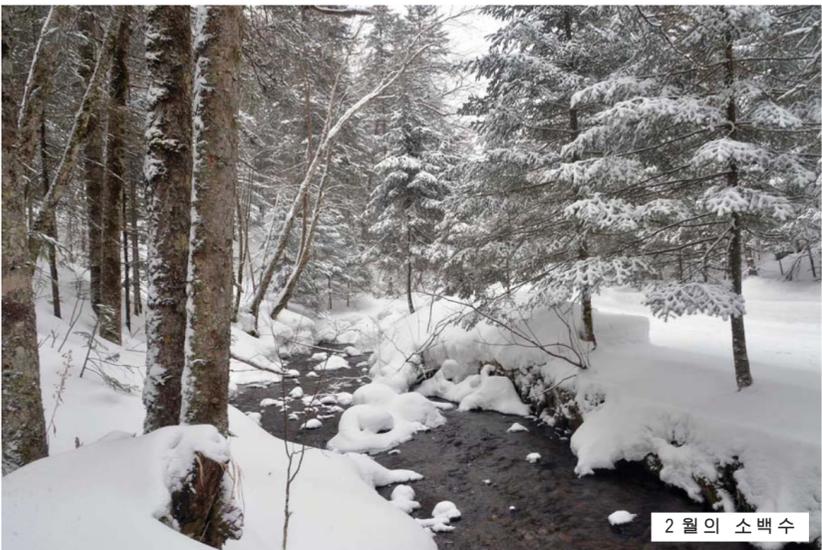
주체95(2006)년 1월말에는 일군들에게 이런 내용의 가르침을 주시었다.

우리 인민의 전통으로 보나 설명절을 쇠어는 력사를 놓고보나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진짜설명절은 양력설이 아니라 음력설이

성파 민족성을 고수하고 적극 살려나가는 의미에서 몇해전부터 음력 1월 1일을 설명절로 크게 쇠도록 하였다. 옛날부터 절기를 써왔지만 절기앞에 음력이라는 말은 붙이지 않는다. 설명절을 일부러 음력설이라고 부를 필요가 없다. 음력설이라고 하는것보다 그냥 설명절이라고 하는것이 더 정확하다. ...

이렇듯 우리 민족이 창조한 우수한 전통을 귀중히 여기시며 그것을 끝없이 빛내어나가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에 의하여 우리 인민은 민족명절인 설명절을 민족적공지와 자부심, 기쁨속에 즐겁게 설수 있게 되었다.

본사기자 김철진



2월의 소백수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을 담아

유리공예 《김정일화》

주체99(2010)년 4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로씨야 21세기관현악단이 올린 선물이다.

선물의 크기는 가로 110cm, 세로 80cm이며 여러가지 색깔의 유리와 금속피로 만들어졌다.

로씨야 21세기관현악단 단장 겸 수석지휘자는 선물을 전달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유리공예품에 형성되어있는 7송이의 김정일화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에서 나오는 북두칠성을 의미합니다. 우

리 악단은 지난 시기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그리움을 안고 이 노래를 무대에 올리군 하였습디다. 때문에 나는 이번 조선방문을 앞두고 장군님을 절절히 그리며 따르는 우리 악단 전체 성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모스크바거울제작소에 선물도안을 주고 가장 우수한 기술자들을 동원하여 많은 품을 들여 선물을 완성 하였습디다. 김정일장군님께 우리모두의 마음이 담긴 이 선물을 꼭 전달해 드릴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본사기자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을 초래하는 합동군사연습과 내정간섭을 중단해야 한다》

— 남조선과 국제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발표 —

남조선의 《오마이뉴스》를 비롯한 여러 언론들은 얼마전 남조선과 국제시민사회단체들이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의 중단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그것을 미국과 남조선 당국에 전달하였다고 전하였다.

공동성명발표에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시민평화포럼 등 남조선의 197개 단체, 《코리아 퍼스 캠페인》과 《코리아 퍼스 네트워크》 등 미국의 110개 단체, 《한》반도평화를 위한 해외동포연대, 국제여성자유평화연맹을 비롯한 80개의 국제사회단체를 포함한 38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였다고 한다.

공동성명을 통해 단체들은 매우 도발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전쟁연습인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의 중단을 촉구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한미는 조선전쟁직후인 1950년대 중반부터 북과의 전쟁을 대비하는 군사훈련을 시작했다. 1970년대 들어서서는 상당한 규모의 무기와 장비를 동원하고 한반도 밖의 미군들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대규모군사훈련으로 발전하였고 2000년대 이후에는 유사시 북에 대한 선제공격과 (참수작전)을 포함한

최근 남조선에서 《대북베라살포금지관련법》을 두고 시비를 걸고있는 미국에 대한 반발기운이 급격히 고조되고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남조선언론 《오마이뉴스》는 《대북베라살포금지관련법》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이 《내정간섭을 중단하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하였다.

보도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 421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성명에서 《대북베라살포금지》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일이자 남북간 신뢰와 평화

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하면서 《미국은 대북베라살포관련 지원과 정치공작을 중단해야 한다.》, 《갈등조정, 평화과파행위를 인권의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미화하거나 지원하는 정치공작을 이어가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또 미국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지만 대북베라에는 검증되지 않은 가짜뉴스는 물론 성적비하와 모욕 등이 대부분이라고 비판하면서 《대북베라살포금지》의 목적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평화권의 지킴》이라고 강조했다.



비난받는 보수야당의 개싸움질

남조선에서 서울, 부산시장 보충선거가 하루하루 다가오며 따라 《국민의힘》내부에서 갈등과 대립이 더욱 격화되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언론 《뉴스1》 등은 《국민의힘》내부가 (가덕도신공항건설계획)을 둘러싸고 PK(부산, 경상남도)와 TK(대구, 경상북도)간 대립이 심화》되고있는데 대하여 보도하였다. 그에 의하면 부산지역 《국민의힘》소

속 의원들은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TK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은 《TK신공항특별법》을 각각 발의했다고 한다. 여기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찬성하면서 《더이상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하여 《TK대성(소외)》론란을 일으키고 대구를 지역구로 두고있는 원내대표는 이에 반대립장을

표명하면서 지도부자체가 서로 상반되는 리해관계로 하여 대립이 격화되고있다는 것이다.

한편 《메일리안》, 《노컷뉴스》 등 언론들은 《국민의힘》의 고질적병질인 막말로 지지물이 떨어지고 그로 하여 당내부의 불만이 커지고있는데 대해서 보도하였다. 언론들은 전한데 의하면 서울시장후보출마자로 나선 인물들속에서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귀화한 조선족》발언과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을 봉진시대의 《후궁》으로 빗댄 발언이 터져나오며 부산시장후보출마자로 나선 《국민의힘》소속 인물이 당내 경선이 《돈선거》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더욱 큰 비난을 받고있다고 한다.

이런것으로 하여 《국민의힘》은 보수층내에서까지 미움과 배척을 당하고있다고 언론들은 평하였다. 본사기자 안 권 일

더욱 심각해지는 사회적난문제들

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사회적난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현 당국의 위기수습노력이 각계의 지지와 호응을 받지 못하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의 한 언론은 지난해 부동산시장은 《총체적난국》이라는 엄중한 상황에 빠졌다. 앞으로 공급을 늘리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올해 부동산시장 역시 크게 나아지지 않을것이라는 비판적인 전망이 나온다고 비판한 한양대학교 교수의 글을 상세히 전하였다.

같은 현 당국의 부동산정책이 효과가 없고 민심

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있는데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현재 지금 또다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실현가능성이 낮을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부동산정책실패의 원인이 《예상하지 못했던 61만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있다고 하는것은 《인과관계가 뒤집힌 역지론리》이라며 《정부》의 실패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하였다.

이보다 앞서 1월 27일 《이데일리》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소득주도성장을 포함한 《정부》의 《네

바퀴성장론》중 어느 하나도 성과를 낸것이 없으며 《한마디로 민생경제는 부동산대란, 청년실업확대, 자영업폐업증중, 양극화심화 등으로 온전하게 없다》고 비난한데 대해 보도하였다.

인터넷신문 《민중의 소리》도 지난 1월 19일과 26일 사실을 통하여 현 당국의 민생살리기노력이 실현가능성이 아니며 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촉진시킨다고 비판하였다.

신문은 사실들에서 현 당국이 리명박, 박근혜의 사면문제, 검찰개혁과 관련한 갈등문제 등에 대해 립장을 밝

한 외교적해법을 제안하고있지만 일본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있어 쌍방관계가 더욱 더 악화되고있다고 전하였다. 그러면서 언론들은 일본의 무상과 자민당이 일본군성노예피해자배상판결을 당장 시정해야 한다, 새로 부임된 일본의 성노예피해자에 대한 배상판결에 《근혹》스럽다고 언급한데 대해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는 친일매국행위가 아닐수 없다고 반발하였다. 시민단체는 《일본정부가 비굴하다 느껴질만큼 수세적대응이나 완전한 침묵으로 일관하는 리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당국이 민족의 지향에 역행하여 일본과 타협하는 길로 계속 나아가간다면 민심의 무서운 함구에 직면하게 된다는것을 명심하고 심사숙고할것을 경고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결과를 비난한 만화



얼마전 남조선의 한 인터넷신문에 실린 만화가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있다.

만화는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은 당시 청와대와 법무부, 정보원, 《기무사령부》 등 박근혜일당에게 무혐의처분을 내린 윤석열검찰의 추악한 본색과 그 속성을 적나라하게 풍자 조소하고있다.

신문은 만화와 함께 《세월》호 유가족이 고소하고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가 퇴한 대부분의 사건, 은 남조선인민들이 알고있는 범죄사건에 대해 대놓고 무혐의처분을 내린 윤석열을 비롯한 검찰이 야말로 정적검찰이 아닐수 없다는 해설문도 함께 실었다. 본사기자

감출수 없는 일본의 과거죄악

《근로보국대》를 통한 강제징용범죄

노예로동을 강요하였다.

1938년부터 시작된 일제의 《근로보국대》동원전에 의하여 끌려간 조선사람은 대단히 많으며 1944년 한해만 하여도 200여만명에 달하였다. 일제는 중일전쟁도발이후에 만든 840만여명의 조선사람들을 유괴, 랍치, 강제연행하여 죽음의 징행관과 공사장들에 내몰았다.

이처럼 일제는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조선국내만이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 끌려가 탄광, 광산, 군사시설장들을 비롯한 고역장들을 가혹한 노동강도와 로동시간을 강요하였을뿐 아니라 마구 학대, 학살하였다. 이에 대해 강제연행피해자였던 한 동포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나는 1942년 갑자기 들

러가 중세기적인 노예로동을 강요당하다가 학살당하였는데 그 수는 1939~1945년까지만 하여도 무려 57만명이나 되었다. 여기에 로동해로 로동능력을 상실한 한 불구자는 헤아릴수 없이 많았다.

이것은 일제의 로동력략탈의 야만성과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의 포악성, 악랄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산거로서 그 무엇으로써도 가리울수 없는 치명리는 반인륜적범죄행위이다. 본사기자 주 광 일



여성전시사회가 낳은 비극

일본여성들속에서 자살자수가 계속 늘어나고있다.

지난 한해동안에만도 약 7000명의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것은 그 전 해에 비해 14.5% 증가한것이라고 한다.

한 대학의 부교수는 자살률이 높아진 원인이 대다수 여성들이 언제 해고될지 모를 근심을 안고있는데다가 가정일로 인한 무거운 부담을 지고있기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나라에서는 여성들이 대체로 호텔, 식당, 상점과 같은 봉사부분에 종사하는

데 경제형편이 악화되면 제일먼저 해고되고만다.

이 나라에서 보잘것없는 수입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근로자들중 70%이상이 여성들이다.

극심한 생활난에 허덕이다가 인신매매업자들의 꼬임수에 넘어 매춘업과 섹스팅화 제작에 종사할것을 강요당하는 여성들이 해마다 늘어나고있다.

하다면 여성자살자가 늘어나는 원인이 경제 및 생활형편의 악화, 가정내에서의 불화에만 국한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본사기자

《보국대》와 징용에 끌려나가는 조선청년들

통일산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법운암

평양의 명승인 통일산의 남쪽종쪽에 고구려시기의 유적인 법운암이 자리잡고 있다.

세워지고 후에 고쳐 세운 석사가 매우 오랜 건축물이라고 설명해주었다.

관리일군은 이에 대한 대답으로 건설처럼 전해내려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전혀 진척시킬수 없었다. 한것은 사람들이 땅에 깡이날을 박을 때마다 통일산이 통채로 멀며 태질하였기때문이었다.

개의 바위를 찾아낸 아도는 황황히 무릎을 꿇고 통일산신과 북두칠성신에게 조연을 구했다.



세계의 하늘가에 공화국기를 날린 체육인들

안마왕 배길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그후 경기들에서 많은 금메달을 안아왔다.



설명절

우리 민족에게는 예로부터 년중 생활동이나 생활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날들에 별식을 차리고 다채로운 행사와 놀이로 즐기는 풍습이 있다.

간에는 먼곳에 있는 옷어른들에게도 찾아가 세배를 하였다.

록 하기 위헌테로부터 나 온 관습이었다.

2월의 절기와 민속

2월에는 립춘과 우수가 있다. 24절기의 첫번째 절기인 립춘은 봄이 시작되는 시기를 일러오는 말이다.

뇌의 피로는 일반적으로 과도한 정신적긴장상태를 가리킨다.

뇌의 피로를 가시는 제조

이러한 피로는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신적휴식이 필요한데 빨리 그리고 깊이 잠드는 것, 기분 좋게 깨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복부와 장기들에는 인체내 혈액의 거의 50%가 모여있기 때문에 그곳에 울혈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묘향산원설, 조선철홍성풍습, 해주교반...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비긴 문화유산들을 발굴정리하고 옮겨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이 활기있게 진행되는 속에 공화국의 민족유산 보호구역에서 4개 대상을 국가 및 지방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하였다.

를 비롯한 이야기들로 엮여졌다.

지방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황해남도의 특산물인 해주교반은 자기 지방의 갖가지 재료들을 식생활에 효과적으로 리용한 우리 민족의 재능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예로부터 전해오는 민족악기



특히 농민들의 생활과 깊이 련관된 악기로 사용되어 왔다.

돌탑에 깃든 녀 (4)

글 장성철, 그림 김윤일

정방산 금정굴 약수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었다.

석철북은 몸을 벌떡 일으켰다. 그리고는 달렸다.

류자림이 왜놈들에게 떠박질러워 비칠때머 결코있었던 것이다.

이 첩첩 흐르는 눈으로 노려보는 석철북을 알아본 놈들은 어제 저녁 이미 그의 들팔매에 맞고 숨통이 끊어진 채 동료들을 보았던지라 모두 가 겁에 질려 몸을 와드드 떨기만 하였다.

이 첩첩 흐르는 눈으로 노려보는 석철북을 알아본 놈들은 어제 저녁 이미 그의 들팔매에 맞고 숨통이 끊어진 채 동료들을 보았던지라 모두 가 겁에 질려 몸을 와드드 떨기만 하였다.

방산사람의 녀이야 어디 가겠느냐? 똑똑히 알아뉘라. 죽은 정승이 산 개만 못하다지만 진짜 개보다 못한것이 바로 지금 살아숨쉬는 네 목숨이다.

가금 전문가

한 사람이 닭알을 사려고 시장에 갔다.